



##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서양인 의사

# 알렌 (安連 / Horace N. Allen) (1858~1932년)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서양인 의사로는 알렌(安連 Horace N. Allen, 1858~1932년)을 꼽는다. 한참 나이에 그는 1884년부터 1905년까지 2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 근대 의학을 전했다. 대단한 인연의 미국인임을 알 수 있다.

### 세브란스 전신인 廣惠院 설립

지금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는 모두 의학박물관이 세워져 있고, 또 서로 알렌이 시작한 근대식 병원을 그들 병원의 시작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원래 알렌은 1885년(고종 22) 서울 재동(齎洞)에 광혜원(廣惠院)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 땅의 첫 근대식 병원이다. 그 후 곧 이름은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었다. 또 그 후 10년 뒤인 1904년에는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도동(桃洞)에 새로 집을 짓고 이전하면서 명칭도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었다. 원래 국립병원이라는 점에서는 국립 서울대병원을 연상할 수도 있고, 세브란스를 생각하면 오늘의 연세대병원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1881년 그 곳 웨슬리언대학교를 졸업한 알렌은 1883년 같은 주의 마이어미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 졸업과 함께 프랜시스 메센저양과 결혼하고는 바로 중국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왔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 선교의사로서 중국에 온 그는 중국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못한 채 상해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한국에 근무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고, 선교본부는 그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선교하면서 의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첫 서양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때 그의 나이 겨우 26세 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었다.

의사가 된지 겨우 1년 지난 젊은이었지만, 당시의 조선은 근대 의학이란 면에서는 형편없이 뒤진 나라였고 당연히 알렌에게는 할 일이 많았다. 오랜 쇠국 끝에 나라 문을 연 것이 겨우 8년 전인 1876년이었으니까—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알렌에게는 일감이 쏟아져 들어왔다. 의사로서 근대 의학을 시행하고 교육하는 일이 있었고, 선교사로서는 기독교의 선교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 자리가 잡히자 외국과의 교섭 경험이 없던 조선 정부에서 서양 사람들과의 외교를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경우 조선에 들어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던 서양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알선해 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알렌은 한국 최초의 근대 의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측에서는 최초의 선교사로도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 서울의 남대문교회는 1998년 9월 20일과 27일에 ‘알렌 기념강좌’를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알렌이 시작한 제중원병원에서 이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강좌를 연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9월 20



미국인 의사 알렌(安連)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서양의사로  
1884년부터 20년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의술을 펴왔다.  
알렌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혜원(廣惠院)을 세웠으며  
자객의 칼에 맞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냈다.  
민영익과의 인연으로 시의(侍醫)가 된 알렌은 어렸을 때  
천연두로 시력을 잃었던 이승만을 치료해 시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다.

일이라면 알렌이 한국에 도착한 1884년 바로 그날이다.

알렌이 이렇게 환영받아 교회와 의술을 함께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의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한 해 앞서 서울에 도착한 초대 미국공사(美國公使) 푸트(Lucius H. Foote)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푸트는 알렌을 즉시 미국공사관의 공의(公醫)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 서울에는 몇몇 외교관이 주재하기 시작할 때여서, 의사로서의 알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점점 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영국, 중국, 일본 공사관의 의사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공사관의 의사로 임명됨에 따라 그 당시 선교사의 자격으로는 입국이 거부되던 상황에서 알렌의 한국 주재는 가능했다. 알렌은 미국 공사관 직원의 협조로 공사관 근처에 한국식 기와집을 한 채 사서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수리했다. 그리고 10월에 상해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10월 26일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집에는 일본인 요리사와 중국인 유모(乳母)와 이하영(李夏榮 1858~1919년)이라는 한국말 선생이 같이 살았다.

알렌이 매입(買入)한 선교사업을 위한 가옥은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때 살해된 사람이 살던 집으로 흉가(凶家)라고 하여 비어 있었다. 알렌의 첫 한국어 선생 이하영은 후에 미국주재 한국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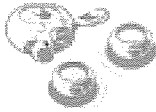
공사가 되었고, 두번째 선생 노춘경(盧春京)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886년 7월 11일 세례를 받았다고 기독교 역사에 적혀 있다.

알렌이 집까지 얻어 자리잡고 난 다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결국 서양의학은 크게 위신을 세우고, 또 덩달아 기독교 선교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것이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개국의 날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이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개화파가 사대당(事大黨) 일파를 제거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다. 연회장에서 다과가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뛰어나오던 민영익(閔泳翊)은 일꾼군데나 칼에 맞아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중 두군데는 거의 치명적이었다.

### 민영익 치료 계기 侍醫에 발탁

1884년 12월 5일에 쓴 알렌의 일기에 “어젯밤은 서울에 있는 외국사람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밤이었다.”고 쓰여 있다. 자객(刺客)의 칼에 맞은 민영익은 민비(閔妃)의 조카로 얼마 전에 한미조약의 비준을 교환하기 위하여 미국을 다녀온 사신(報聘使)이었다.

때마침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와 있던 독일인 필렌돌프의 관저에 당도하니 한의(漢醫)들이 열



네 사람이나 모여 앉아 있었다. 이런 외과적 치명상을 한의학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알렌의 치료가 민영익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다. 서양의 술의 신비스런 효과는 왕실의 신망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공개적인 선교활동의 길이 열렸다. 1885년 1월 27일 민영익은 회복되어 알렌에게 10만냥을 보내 사례했다.

민영익과의 인연으로 그는 고종(高宗)의 시의(侍醫)가 되었고, 물려드는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885년 1월 22일 알렌은 서울 주재 미국 대리공사 폴크(George C. Foulk, 福久)를 통하여 국립병원 설립안을 제출했다. 알렌은 자신은 보수없이 일하겠지만, 건물 하나와 한해의 경상비와 약품 값으로 3천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에는 1886년 의학교도 부설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전국에 의학에 소질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16명을 선발했다. 3개월 교육 후 4명이 탈락하고 12명이 남아 근대 서양의학에 배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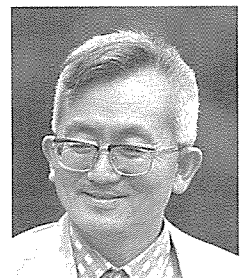
### 천연두로 시력잃은 이승만도 치료

알렌에게는 두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1897년 의사로 있다가 한국 주재 공사가 된 알렌은 당시 친로(親露) 내각 대신들을 정릉의 집으로 초대했다. 각테일을 마치자 알렌은 유성기(留聲機)를 꺼내 놓았다. 물론 거기에 참석한 대신들로서도 처음 보는 진기한 물건이었다. 그 때의 축음기는 납으로 만든 원통(圓筒)레코드였다. 녹음과 재생이 되는 녹음 및 축음기 겸용이었고, 그 소리란 '문풍지 떨듯' 했던 때였다. 소리가 나자 대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면서도 놀란 표정을 감췄다. 알렌은 곧 짧은 연설을 하고, 한 대신이 답사를 하게 했다. 이 연설과 답사는 몰래 녹음되었던 것이다. 약 반시간 후에 그 녹음을 유성기로 틀어 재생시켜 놓았다. 그런데도 이 근엄한 한국 대신들은 눈만

약간 크게 떴을 뿐 여전히 청이불문(聽耳不聞)한 채 천장을 보거나 창 밖을 보거나 돌아앉거나 하며 결코 경악하지 않았다.

이승만(李承晩)이 어렸을 때 천연두로 시력을 몇 달 동안 잃었던 것을 고쳐준 것도 알렌이었다. 장님이 된 어린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아버지 이경선(李慶善)은 6대 독자인 아들의 실명을 고치려 온갖 노력 끝에 드디어 알렌에게 데리고 왔다. 그는 물약을 주면서 3시간 만에 한번씩 눈에 떨어뜨리면 사흘 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마침 이승만의 열번째 맞는 생일이었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가져와 수저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때 갑자기 소년 이승만은 마루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기어가면서 눈이 보인다고 소리쳤다. 기쁨에 어쩔 줄 모르던 그는 계란 한줄을 선물로 들고 아이를 데리고 알렌에게 찾아갔다. 알렌은 선물을 사양하면서 당신 아들에게 계란이 더욱 필요하니 잘 먹이라고 하였다. 일화다.

미국 공사로 근무하면서 전기, 전화, 철도, 광산 등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 작업에 많은 미국 기업가를 참여시키는 일에 열성이었던 알렌은 1905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자 미국 공사 자리에서 밀려나, 고향 오하이오주 톨리도에 정착했다. 1930년에는 건강이 악화하여 두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르렀고,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㉟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